

#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농촌경제 살린다

### 지역농가 67곳 참여 옥션·G마켓 등서 50개 품목 판매 7개월 동안 3만3683건 거래·5억700여만원 수익창출

익산시가 추진한 마을전자상거래가 지역 소규모 농가의 새로운 수익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지역 최초로 도입된 마을전자상거래(사진)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3만3683건 거래가 이뤄져 5억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마을전자상거래는 지역 농가 67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농가들은 옥션과 G마켓, 11번가, 네이버스토어 등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약 5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9600만원을 투입해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판매조직을 구성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4배 가량 확대된 규모로 참여 농가들은 이를 활용해 농·특산품은 물론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했다. 시는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이 판매됐을 때 발생하는 최대 15%의 수수료와 농가 당 최대 100만원의 택배비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IT마을도우미 20명을 모집하고 72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입점 컨설팅과 스튜디오 촬영 등을 지원했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다양한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도 실시했다.

시는 농가 호응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오픈마켓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김장 시즌을 맞아 다음 달 초까지 오픈마켓을 통해 절임 배추 등 김장 재료를 판매하는 기획전도 추진한다. 시는 계절별로 농산물을 판매할 생산농가를 적극 발굴하고 다송, 미륵산 권역 등 권역별로 참여 농가 수요를 조사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된 마을전자상거래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광양상의, 광양항 배후부지 확대 지정 촉구 철강산업 등 위기의 지역경제 중앙정부 차원 관심·지원 필요

광양상공회의소(이하 광양상의)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광양항 배후부지 확대 지정을 제시했다. 광양상의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철강 산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 공세와 철강 수요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기"라며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양 산업의 두 축으로 꼽히는 광양항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한 배후부지가 필요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30년까지 북측 배후단지(11만㎡) 조성 계획만 있어 부산항(426만㎡), 인천항(512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광양항 배후부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광양항 활성화와 지속한 지역경기 위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후부지가 확대 지정되고 즉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즉시 배후부지로 공급이 가능한 세풍일반산업단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어 최근 전남도는 세풍산단을 광양항 배후부지로 확대 지정하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면서 광양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배후부지에 입주할 3개 기업(10만㎡)을 모집하였는데 13개 기업이 신청해 광양소재 기업 3개를 포함한 10개 기업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상의는 광양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 공세로 수익성이 나빠지고,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철강 수요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비쳤다. "철강도시"인 광양지역 기업의 경영난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어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양항 활성화가 시급한 대목이다. 올해 8월 발표한 자족형 화물창출을 위해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담으로 개발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지정이 지연되면 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북측 배후단지(11만㎡)가 조성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되기를 희망하며,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는 광양만권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군산시보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용동·미성동·산북동 지역 치매 고위험군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도란도란 기억속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군산시보건소, 치매 환자 인지강화 교육 성과

군산시보건소는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지강화 교육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군산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용동·미성동·산북동지역 치매 고위험군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도란

도란 기억속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보건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 인식·인지훈련 등의 신체·뇌 운동, 미술·원에 음악 심리치료를 통한 인지자극, 태블릿 PC 활용을 통한 인지증진, 뇌 인지증진을 위한 건강 레시피 조리실습 등을 전

개해 왔다. 특히 일대일 맞춤형 건강·영양·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정신건강을 관리해 왔다. 보건소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춘교실 주민자치 건강봉아리의 가입을 유도해 우리동네 건강걷기, 라인댄스 등 건강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어민 부담 어선원 보험료 일부 지원

고창군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의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등급별로 15~71% 보험료를 지원한

다. 어민 부담 보험료의 일부(어선원 8~25%, 어선 4~19%)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어선을 소유하고,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3t이상은 의무가입, 3t 미

만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어선원 보험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맨손 어업에 종사하는 만15~87세의 어업근로자는 어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부담은 20%정도다. 어선원 보험료는 고창군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안전공제는 고창군수협과 고창군수협 심원지점에서 신청 받고 있다. 올해분 마감은 12월18일까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시내버스 자유 이용 정기권 전주시 전국 최초 발행 한옥마을 등 교통편의 제공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발행한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1일권과 2일권, 30일권 등 정해진 기간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중심에서 전역으로 여행객의 발길을 넓히고자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여행객을 위한 1·2일 정기권을 운영한다.

또 30일 무제한 정기권도 함께 도입해 학생과 직장인 등이 시내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금액은 1일권 5000원과 2일권 9000원, 30일권 5만원이다.

정기권을 구입하면 무제한으로 정해진 기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은 스마트폰(아이폰 제외)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카드회사와 관광안내소 등과 협의해 실물카드도 발매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와 올해 사전 모집한 시민체험단을 대상으로 자가용 대신 걷거나 자전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버스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기권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이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도가 되도록 통행패턴 등을 분석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신안군,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대부분 합격 판정

신안군은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를 두 차례(7·9월) 한 결과 대다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새우양식장 346개소 중 미합식(조기폐사) 양식장 18개소를 제외한 검사 결과 적합 297개소(91%), 관리요망 21개소(6%), 주의 10개소(3%)로 나타났다.

축제식 새우양식장(사진) 배출수가 인근 해역(갯벌)을 오염시킨다는 추측성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국가 공인 수질분석 기관에서 총질소, 부유물 등 4개 항목을 정밀

조사했다.新安군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축제식 새우양식장에 대한 배출수 기준치가 없다"면서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기준(치) 고시 제정을 통해 친환경 새우양식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주기적으로 배출수 검사를 해 고시에 준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유해약품 등이 검출된 양식장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